

예술인 포트폴리오

작성일 : 2020. 12. 23.



조각가
이일

| 예술인명 | 이일 | |
|----------------|------------------------------|--|
| 소 개 | 금속을 사용하여 형상조각을 하고 있는 조각가입니다. | |
| 주 교 이 요 역 령 | 2015.08 |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석사 졸업 |
| | 2010.02 |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 학사 졸업 |
| | | |
| 개 인 전 | 2018.04 | <Rainbow forest-Green forest>, 자운제 갤러리, 경기 |
| | 2014.08 | <Robot-도시괴물>, 갤러리 이즈, 서울 |
| | | |
| 단 체 전 | 2020.09 |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mbc, 춘천 |
| | 2020.05 | <판교랜드-I love family>, 판교 현대백화점, 판교 |
| | 2019.08 | <바다미술제>, 옥포 수변공원 일대, 거제 |
| | 2019.06 | <상상유희>, 세종문화회관 야외 일대, 서울 |
| | 2019.04 | <견생전>, 포천아트밸리, 포천 |
| 소 장 | 2017.03 | <Green tree>, 양구군청, 양구 |
| | 2016.10 | <푸른숲의거인>,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 상 훈 | 2013.03 | 경인아라뱃길 야외 조각전, 최우수상 |
| | 2010.09 | 제11회 대교 전국대학원생 조각 공모전, 장려상 |

현대 사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는 급속도로 비대해졌으며, 기계적, 획일적인 거대한 환경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소외감과 위압감, 억압감등을 느끼게 한다.

어른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똑같은 하루와 한달, 그리고 되돌아보는 한해와 예상되어지는 나날들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과 함께 어느새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고정된 틀 안에서 고정된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에 회의감과 슬픔이 밀려온다.

노동자의 삶과 예술가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본인 역시 이러한 현대사회의 현대인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공허함이 내면에 자리잡고 있다. 본인은 예술이라는 창작활동으로 가슴 속 빈 공허한 자리를 채워내려 하고 있다. 정해진 답이 없는 것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내 맘대로의 세상을 상상하고 구상하고 실현한다. 그 시간 동안 본인은 잠시 세상과 단절된 공간 속에서 걱정도 슬픔도 억압감도 잊게 되며, 행복함과 만족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적잖은 사람들, 그리고 본인은 자연으로 회귀를 꿈꾼다. 현재도 계발진행중인 도시들은 편리한 조건과 여건 등으로 삶이 윤택해지길 바라며 아직도 성장중이다. 하지만 이런 성장과정에서 성장통을 입는 일도 비밀비재 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쟁취 과정들은 많은 노동, 경쟁, 자본을 요구하며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본인은 비도시 속 자연에 유독 시선과 마음이 가게 되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숲과 숲을 이루고 있는 구성체인 욕심없는 유기물은 그들을 마주하는 본인에게 소박한 위로가 되었다. 마치 삶이라는 힘겨운 오래달리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중간지점이 아니라 마지막 지점처럼 말이다.

본인의 작품은 선재로 이루어져 있다. 투명성이 강조된 표현방법과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들은 주위의 배경과 동화될 뿐 아니라 보는 거리에 따라서 허상처럼 또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인과 현대인들의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려 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규칙적이고 반복된 패턴들은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한다. 좀처럼 도시 속에서 볼 수 없는 소재와 형상들은 도시 속에 설치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비일상적인 공간과 잊혀졌던 감정, 고정된 사고를 벗어나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본인은 이러한 연유로 대형조각을 통한 야외조각에 관심을 갖고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아픈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본인의 작품으로 하여금 잠시나마 진통제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만들고 있다. 현재진행중인 본인의 미술과 예술작품을 통해 많은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현대사회에서의 지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될 수 있길 바라며 그 바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아름다운 예술가로서 즐겁게 살아가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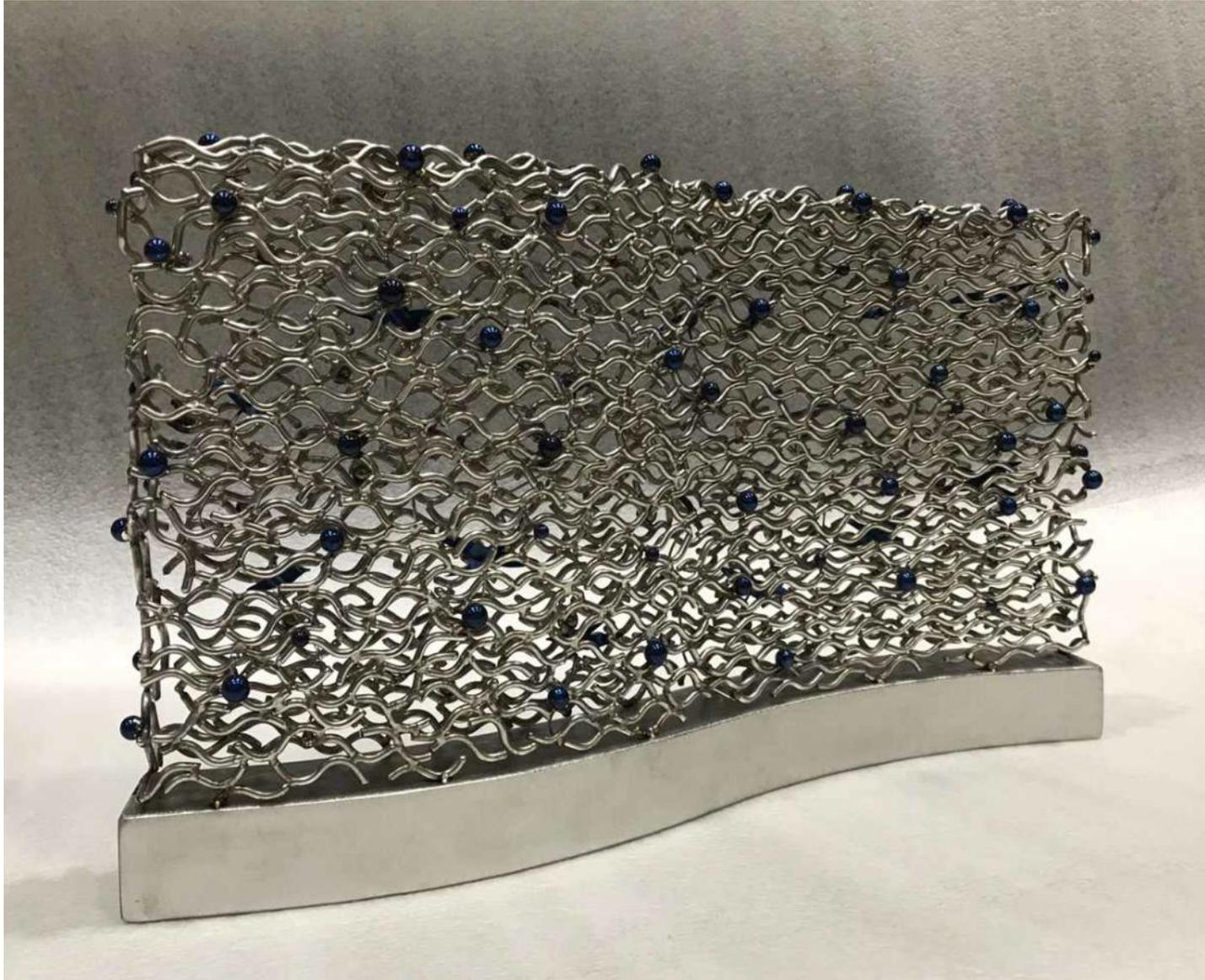
2019 작가노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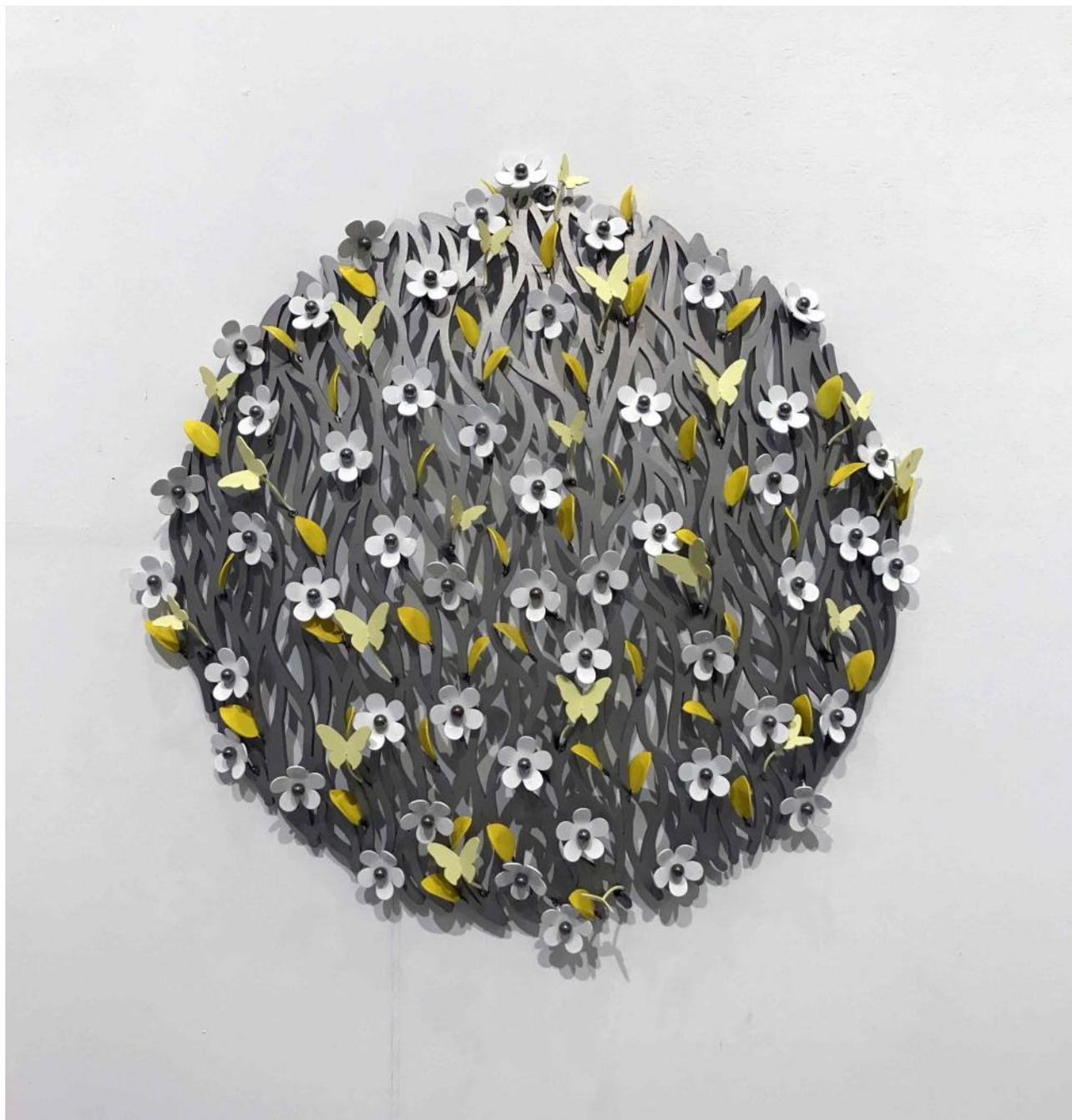
이일, Mother, stainless steel, 렉산, 600x1600x2500m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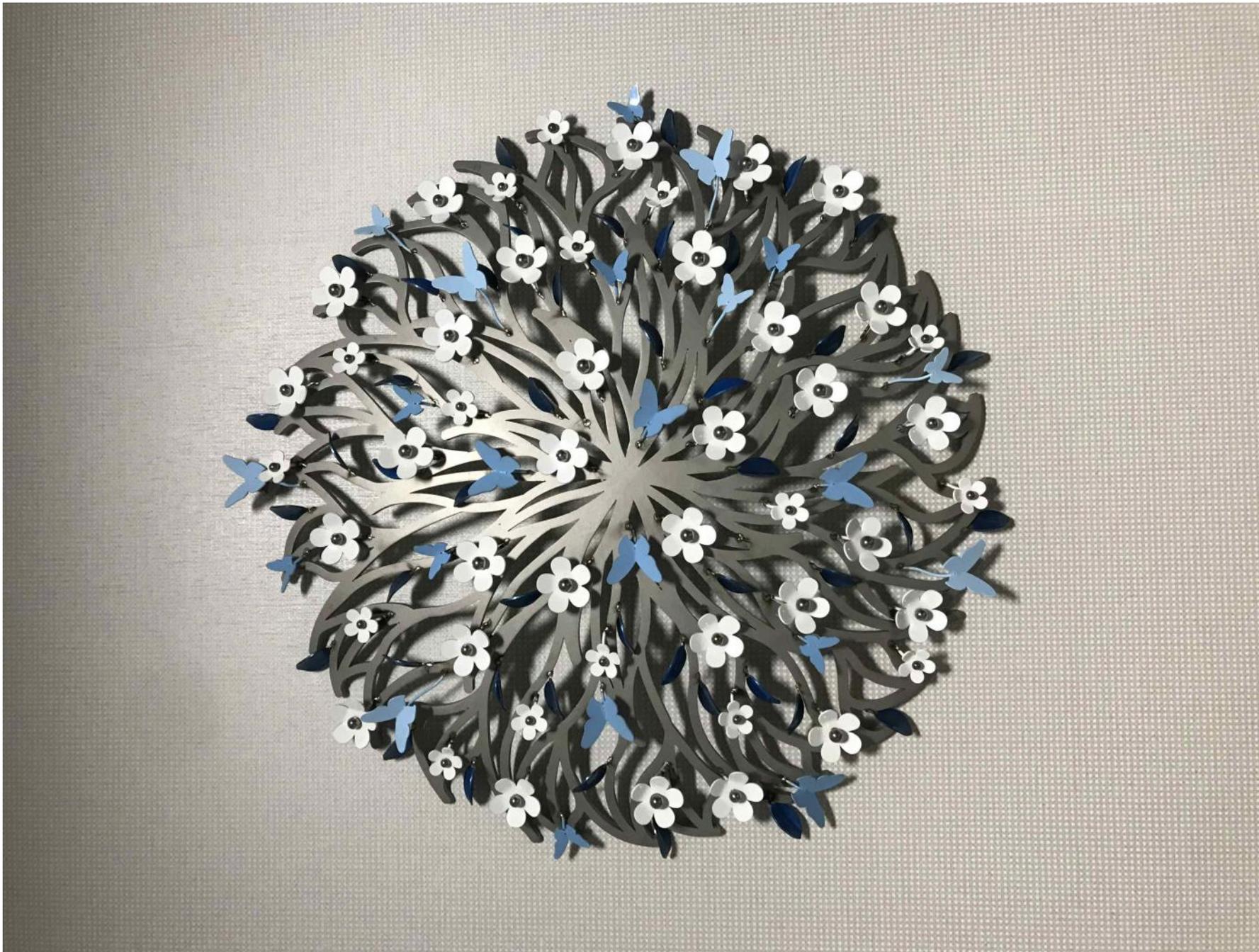
푸른숲의 거인 2, 1000x600x2700mm, stainless steel, 2019



Sky wave, 350x50x2000mm, stainless steel,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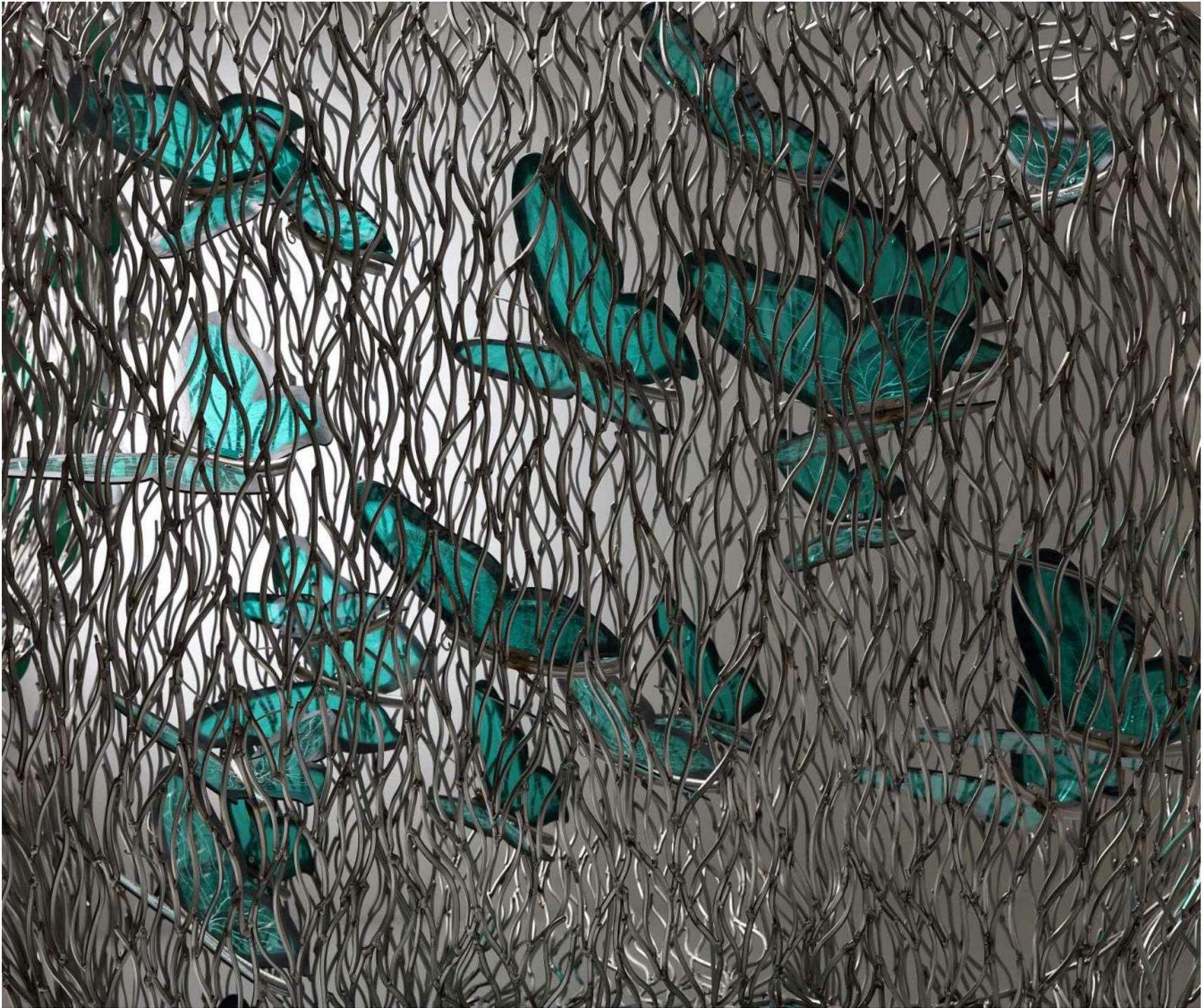
이일, Imagine a yellow forest 2, 500x500x50mm, stainless steel, 2018



이일, Imagine a blue forest 2, 500x500x50mm, stainless steel, 2018



이일, 꽃끼리2, 스테인레스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1600x2100x1800mm,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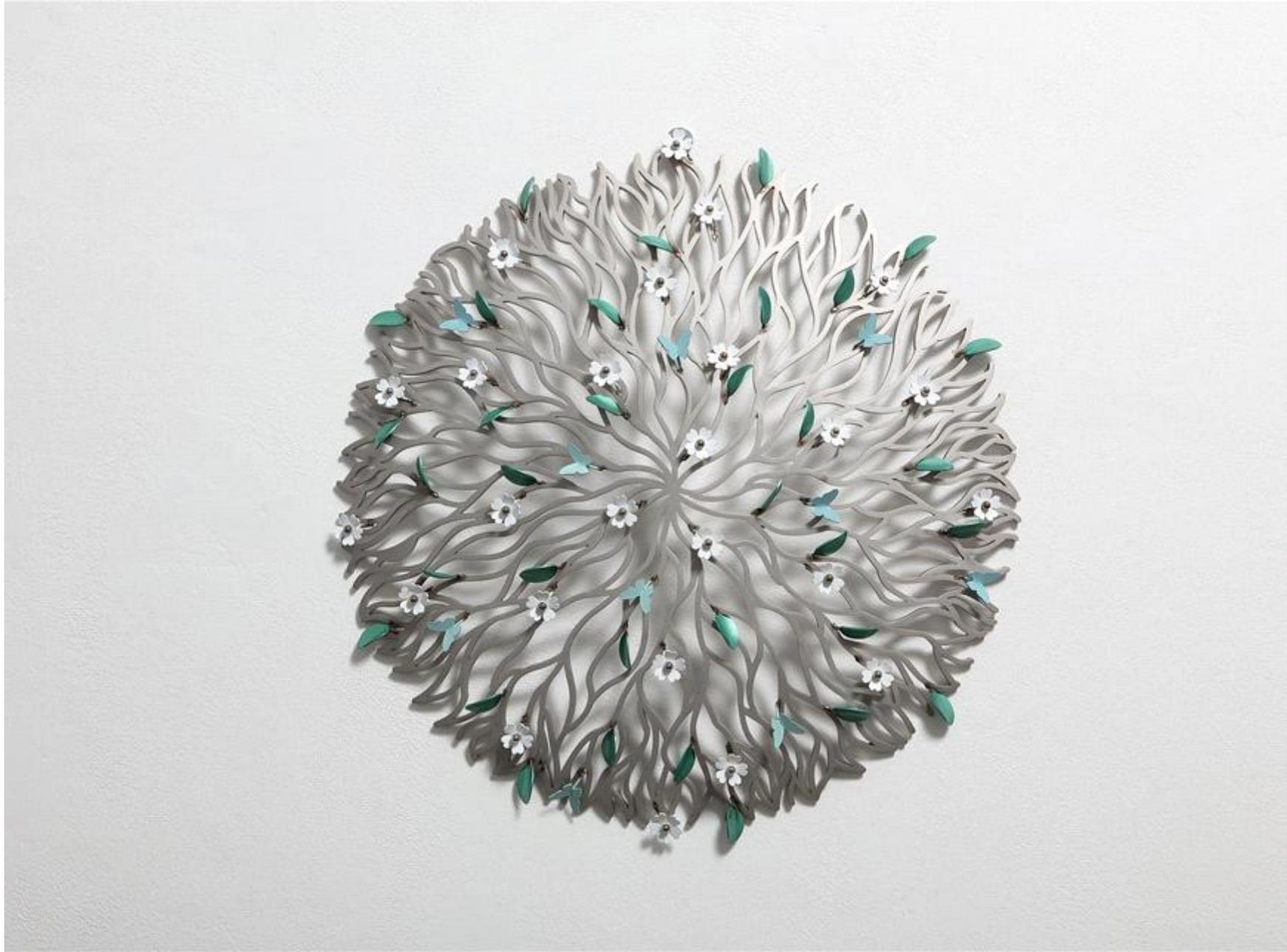
이일, Imagine a Green hole, 600x600x1300mm, 스테인레스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2018



작은꽃끼리, 450x620x510mm, 스테인레스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2018



이일, Imagine a yellow forest 1, 500x500x50mm, stainless steel, 2017



이일, Imagine a green forest 1, 500x500x50mm, stainless stee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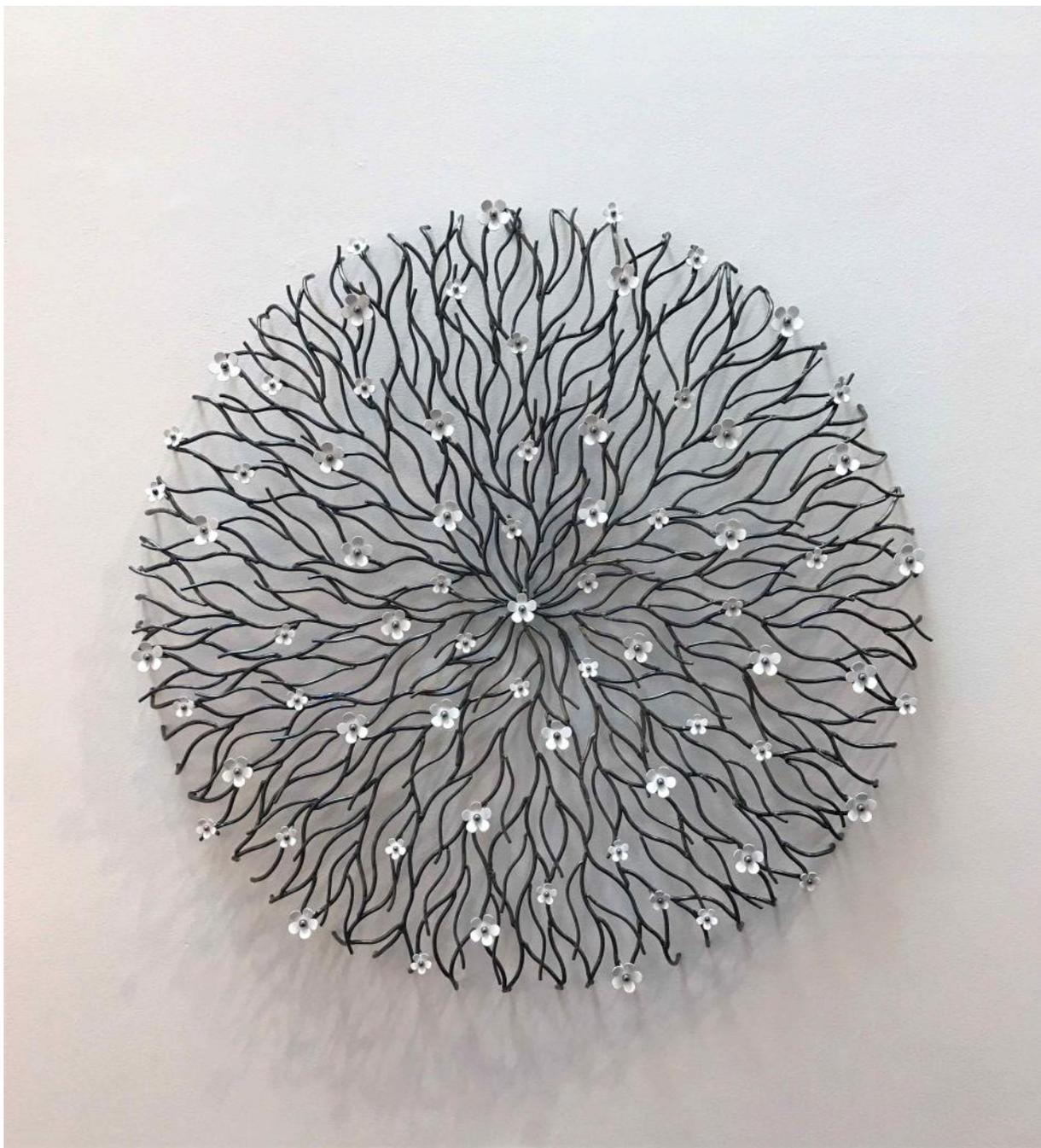
이일, Imagine a red forest 1, 500x500x50mm, stainless steel, 2017



이일, Imagine a blue forest 1, 500x500x50mm, stainless steel, 2017



이일, Imagine a rainbow forest 2, 900x900x130mm, stainless steel, 2017



이일, Imagine a forest1, 900x900x130mm, stainless steel, 2017



이일, 꽃끼리, 2600x3600x2900mm, 스테인레스 스틸,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2017







Green tree of Rainbow Forest1, 230x230x520mm, 스테인레스 스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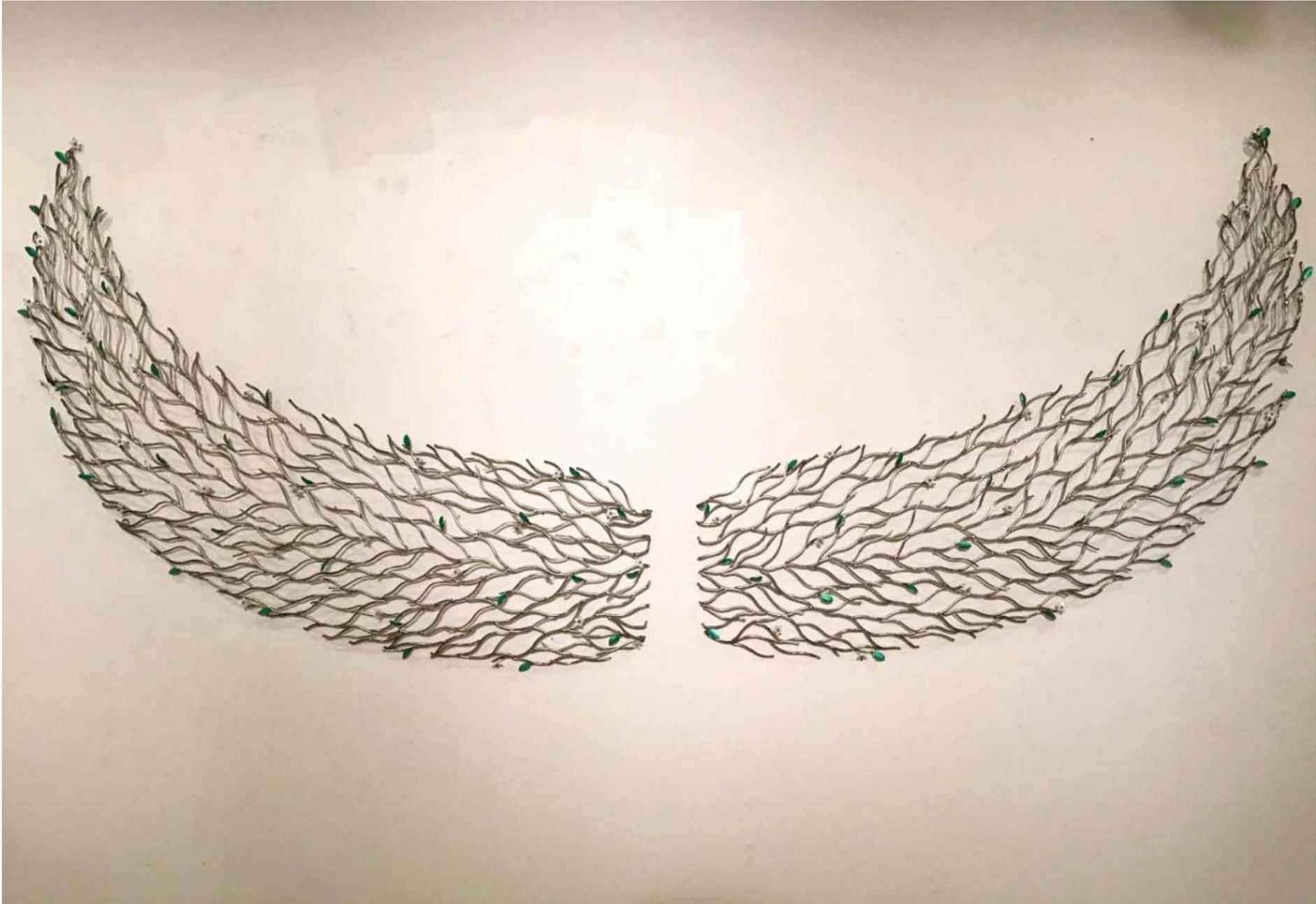


Red tree of Rainbow Forest1, 230x230x520mm, 스테인레스 스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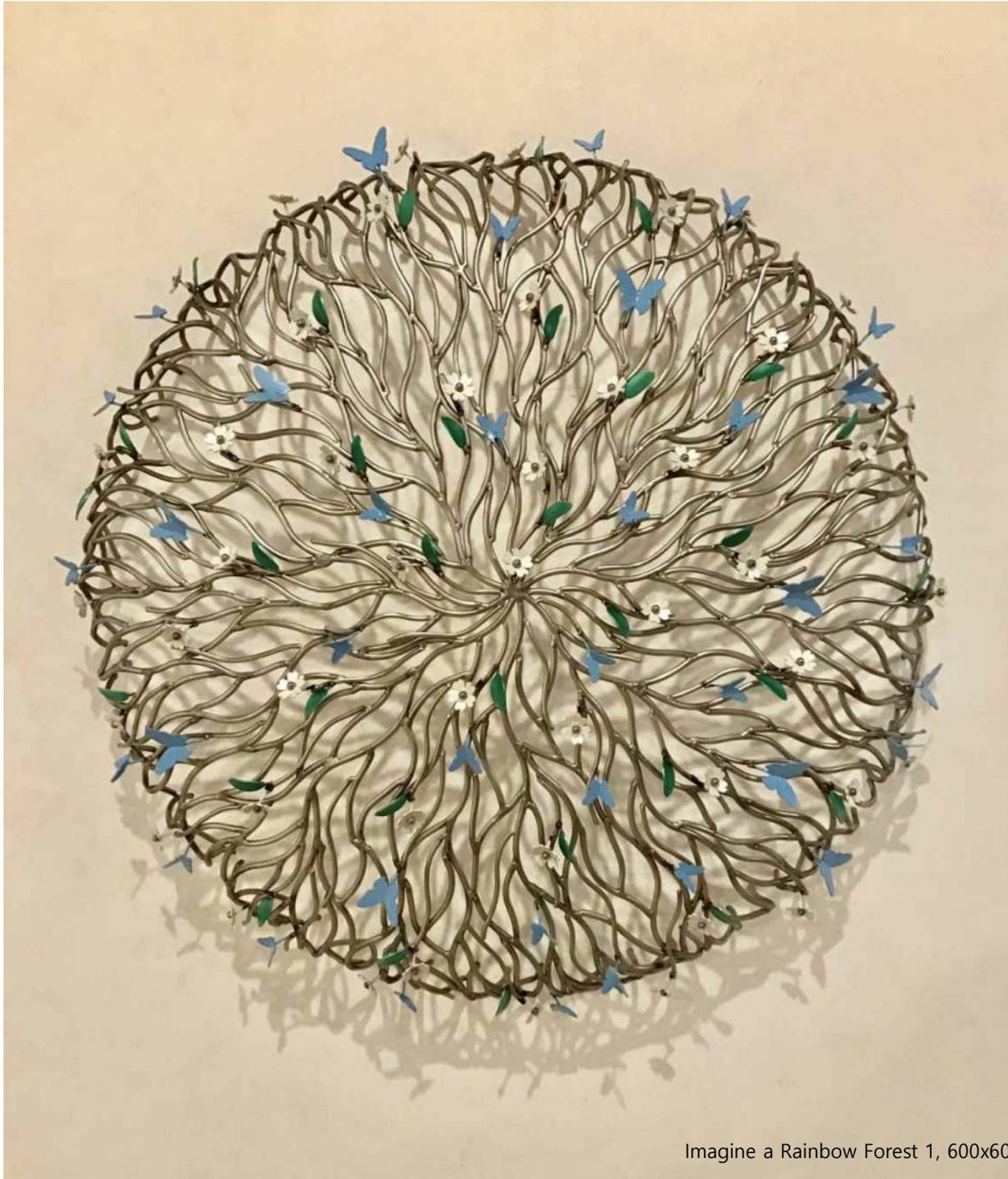


이일, Love tree of Rainbow Forest1, 250x170x450mm, 스테인레스 스틸, 2017





Imagine a wing, 2400x1100x50mm, stainless steel, 2016



Imagine a Rainbow Forest 1, 600x600x80mm, stainless steel, 2016



이일, 무지개숲의 나무꾼, 600x800x1800mm, 스테인레스 스틸, 폴리 카보네이트, 2016



이일, 푸른숲의 거인, 1050x600x2700mm, 스테인레스 스틸, 2016





이일, 무지개숲의 나무꾼, 1200x1200x2600mm, 스테인레스 스틸, 2016



주요전시 : <2회개인전 Imagine a Rainbowforest-Green forest >



| | |
|------|-----------------------------|
| 전시일정 | 2018. 04. 14 ~ 2018. 05. 12 |
| 전시장소 | 자운제 갤러리(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309-4) |
| 전시소개 | 2회 개인전 |
| 영상링크 | |

주요전시 :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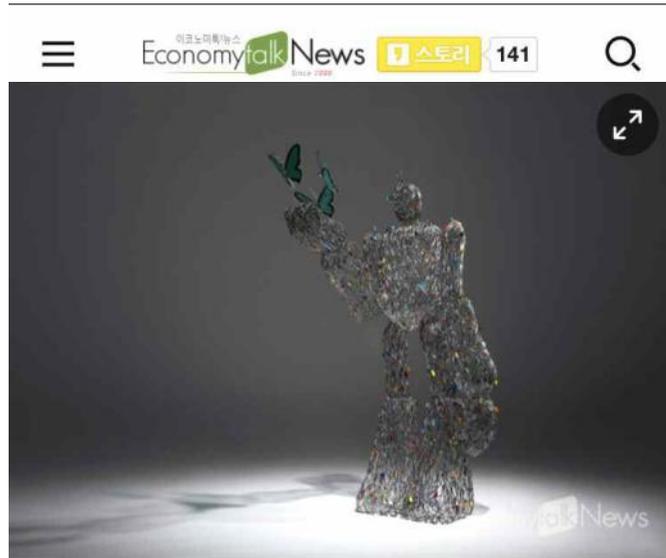


주요전시 : <단체전>



주요전시 : <2회 개인전>

언론보도 스크랩(2018.04.16, 이코노믹뉴스)



▲ 이임, '무지개숲의 나무꾼'.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갤러리 자운제에 펼쳐놓는 조각가 이임의 숲은 현실 세계에서 풀지 못하는 욕망과 공허함으로 만들어진 '무지개숲'이다.

작가는 이 공간을 자연에서 얻어진 소재들과 패턴을 사용해 상상으로 만들어진 사랑 꽃이 열리는

[왕진오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대사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유토피아 같은 공간으로 만드는 작가 이임이 일곱 가지 숲으로 만들어진 상상 속 세계 '무지개숲'을 만든다.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갤러리 자운제에 펼쳐놓는 조각가 이임의 숲은 현실세계에서 풀지 못하는 욕망과 공허함으로 만들어진 '무지개숲'이다.

작가는 이 공간을 자연에서 얻어진 소재들과 패턴을 사용해 상상으로 만들어진 사랑 꽃이 열리는 사랑나무, 투명한 나비, 숲의 패턴과 꽃으로 만들어진 꽃끼리 등의 작품을 형상화 하여 유희적 공간을 채워나간다.

영국 작가 존 컨스터블(John Constable)은 무지개에 대해 "희망의 부드러운 아치인 만큼 무지개만큼 자연을 멋지고도 온화한 빛으로 발하는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임 작가는 현대 사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는 급속도로 비대해졌으며, 기계적, 획일적인 환경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또한 현대도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소외감과 위압감, 억압감 등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전시장에 펼쳐 놓은 작품들은 숲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한 모습의 스틸 재질의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숲과 사랑나무를 형상화한 작품 그리고 꽃으로 만들어진 '꽃끼리'까지 정겨운 모습의 조각품들이 함께한다.

이임 작가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고정된 틀 안에서 고정된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에 회의감과 슬픔이 밀려온다"며 "작품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유토피아 같은 곳을 만들어 봤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

주요전시 : <The Shift>

언론보도 스크랩(2017.01.23, 경기신문)

≡ <경기신문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은 하루와 한달, 그리고 한해를 보낼 수록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결혼과 함께 공장부지를 전전하며 일일노동자로 한해를 살아본 이 일 작가는 빈손과 빈통장만이 남은 현실의 공허함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가슴 속이 비어있는 외로워 보이는 양철 나무꾼에 현대인의 삶을 투영,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짙은 메시지를 전한다.

왓지 공감가는 현대인의 씁쓸한 자화상

제2회 갤러리박영 작가공모 선정전 첫 번째 전시가 다음달 26일 까지 파주시 갤러리박영에서 열린다.

지난해 진행한 박영 작가공모전에 당선된 11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는 '2017 THE SHIFT'를 주제로 3부에 걸쳐 진행, 그 첫 번째 전시로 김성결, 양미나, 이일, 전우연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은 하루와 한달, 그리고 한해를 보낼 수록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결혼과 함께 공장부지를 전전하며 일일노동자로 한해를 살아본 이일 작가는 빈손과 빈통장만이 남은 현실의 공허함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가슴 속이 비어있는 외로워 보이는 양철 나무꾼에 현대인의 삶을 투영,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짙은 메시지를 전한다.

갤러리박영 관계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을 담고 있는 '2017 더 시프트'전을 통해 문화 예술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요일 휴관.(문의: 031-955-4071)

/민경화기자 mkh@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